

잔류 불씨 살린 광주FC “기적의 드라마 쓰겠다”

11위 강원과 3점 차·10위 성남과 5점 차... 남은 기회 두 번 모두 이겨야 포항전 첫승 여세 몰아 몰아오는 '엠브라더스' 출격 27일 성남전 승리 다짐

꺼져가던 잔류 불씨를 살린 광주FC가 '기적'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A매치 휴식기를 보낸 광주가 27일 오후 4시 30분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FC와 2021 K리그 1 37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잔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제 두 번의 기회만 남았다.

성남과의 원정경기에 이어 내달 4일 안방에서 열리는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끝으로 광주의 2021시즌이 마무리 된다.

현재 광주는 K리그1 최하위인 12위에 머물고 있다.

승점 36점으로 11위 강원FC를 3점 차로 쫓고 있다. 10위 성남과는 승점 5점 차, 9위 FC서울은 7점 차 밖에 있는 만큼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경우의 수로는 10위까지 가능하다. 무조건 두 경기를 이기고 봐야 한다.

역시 강등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는 성남과 만나게 된 만큼 이번 경기는 '승점 전쟁'이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 광주는 베팅 끝에서 전개된 36라운드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포항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다.

포항전 창단 첫 승을 장식한 광주는 승점 3점을 더해 꺼져가던 잔류 불씨를 살려냈다.

투지와 패기로 승리를 만들었던 광주는 기세를 이어 가적 같은 잔류 드라마 집필을 준비하고 있다.

매서운 창이 광주의 무기다. 광주는 최근 5경기에서 11골을 장식하면서 뜨거운 공격력을 과시했다.

'풍암동 지단' 김중우가 날카로운 패스로 상대 진

영을 뚫고, '엠브라더스' 엄원상-엄지성이 스피드와 특점으로 폭발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앞선 포항전에서는 알렉스와 헤이스가 슈팅 실력을 과시하면서 빨랫줄 같은 중거리포로 극적인 승리를 합작했다.

여기에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던 조나탄도 잠시나마 그라운드를 밟으면서 이번 경기 '조커'로 급부상했다.

탄탄한 조직력과 수비를 갖춘 성남은 현재 잔류 경쟁에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방패에 비해 장이 부실하다.

성남은 올 시즌 36경기에서 단 32득점에 그치면서 리그 최소 득점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중 12득점은 물리치가 기록하는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중원의 핵 김민혁도 현재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광주가 상대 공격의 핵심 물리치를 봉쇄하고,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으로 잔류를 위한 무대를 연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27일 오후 4시 30분 성남FC를 상대로 37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지난 36라운드 포항전에서 헤이스가 팀의 잔류 불씨를 살리는 골을 넣은 뒤 환호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2부 첫 FA컵 우승' 노리는 전남 가시밭길 2차전

1차전 홈경기서 대구에 0-1 패배 12월 11일 대구 원정 경기 총력

K리그2팀 최초의 FA컵 우승을 노리는 전남드래곤즈가 골 가물고민 속 가시밭길 2차전을 펼치게 됐다.

전남은 지난 24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컵 결승 1차전에서 대구FC에 0-1 패배를 기록했다.

안방에서 패배를 기록한 전남은 오는 12월 11일 적지로 가서 2차전을 치른다.

2007년 이후 14년 만의 우승이자 K리그2 사상 첫 우승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홈 패배로 부담 많은 원정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골 침묵이 고민이다.

코로나 위드 전환 이후 첫 홈경기에 4503명의 관중이 입장하면서 관중석 분위기는 뜨거웠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가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팽팽하던 승부, 전반 26분에 나온 페널티킥에 승부가 갈렸다.

골 지역 왼쪽을 돌파하려던 대구 세징야를 막기 위해 김태현이 태클을 시도했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라마스가 키커로 나서 골망을 흔들면서 선제골을 가져갔다. 그리고 전남의 14차례 슈팅이 모두 빛나지면서 이 골은 결승골이 됐다.

지난 3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2 준플레이오프에서 0-0으로 탈락의 아픔을 겪었던 전남은 다시 이를 악물고 나선 FA컵 결승 1차전에서 침묵을 깨지 못하고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전남은 다음 2차전까지 화력 접하라는 중요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그레아 1997·2006·2007년에 이어 4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K리그2팀 사상 첫 FA컵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제10회 돌하르방배 전국초청축구대회'에서 선전한 전남 축구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족구 '전국 최강'

순천ok, 돌하르방배 전국대회 우승... 여수다모, 일반부 3위

전남족구가 전국 족구동호인 대회에서 최강에 올랐다.

25일 전남족구선수단에 따르면 순천ok가 최근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제10회 돌하르방배 전국초청축구대회' 전국일반부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ok는 전국50대부 정상에도 올랐다. 여수다모는 전국 일반부 공동 3위에 랭크됐다.

순천ok 최흥석은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신홍식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일반부, 전국 40대부, 전국 50대부, 전국여성부·60대부, 제주일반부 2,3부 등 총 6개 부로 나눠서 경기를 치렀다.

전남 족구선수단은 전국일반부 3위, 전국50대부 2위, 전국여성부 1팀이 경기에 참가했다.

전남족구협회 장유신 회장은 "최근에 전남족구가 상승장구 하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전남족구 발전과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25일 제15회 광주시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개막했다. 이용섭 광주시장, 전갑수 광주시배구협회장 등 내외빈과 선수들이 대회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광주 장애인체육인들 화합의 한마당 펼친다

25~28일 생활체육대축전

광주시 장애인체육인들이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생활체육 한마당 축제가 개막했다.

제15회 광주시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 25일~28일까지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11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구별 생활체육프로그램 경연대회, 종목별 대회, 어울림종목대회, 뉴스포츠 대회 등 모두 25개 종목이 진행된다.

종목별 대회에는 5개 종목(수영, 보치아, 배구, 볼링, 게이트볼) 37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어울림 경기에는 530여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한다. 파크골프, 탁구 등 7

개 종목별 경기는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서용규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2년 만에 개최되는 생활체육대축전을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대회로 치르겠다"며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한 축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유체이탈자
2관	장르만 로맨스
3관	유체이탈자, 둔, 디어 에반 핸슨, 강릉
4관	연애 빠진 로맨스
5관	엔간토: 마법의 세계
6관	유체이탈자
9관	이터널스
7관	씨네케틀 연애 빠진 로맨스, 강릉
8관	씨네케틀 둔, 메이드 인 이태리, 프렌치 디스패치, 시비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나치 시대,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제17회 정기공연

나의 살던 고향

일시 : 2021.11.25.(목)~27.(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특별기획공연

김수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11.28.(일)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즐거움

문화 산책

상르만 로맨스

나만의 리얼리티! 인생을 바꿔주세요!